

# 지역 미술관들, 내년 3월말까지 기증·소장품 전시

전남도립미술관, 3월말까지 기획전 '시적추상'에 139점

광주시립미술관, 3월10일까지 작년 수집한 소장품 등 50점

지역미술관들이 기증·소장품을 전시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3월31일까지 미술관 1층 기증전용관에서 기증작 기획전 '시적추상', 광주시립미술관은 3월10일까지 제3·4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수집\_호남의 기억과 시간'을 진행 중이다. 미술관이 선택한 명작들과 함께 겨울 감상에 젖어본다.

전남도립미술관이 기증받은 작품은 139점으로 전체 소장품 29%를 차지한다. 기증작품 중 남도 미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대표 작가 작품이 100여 점으로 규모·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컬

렉션을 구성하고 있다. 기획전에서 김환기, 유영국, 고화흠, 진유영, 오숙환, 이철주, 이인, 강운 등 대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며 '한국 추상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는 △한국적 추상-사유의 세계 △서정적 추상-자연의 생명력 △관념적 추상-색채의 풍경' 등 세 파트로 나뉜다.

'한국적 추상-사유의 세계(1950~60년대 작품)'는 한국 추상미술 선구자인 김환기와 유영국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 추상미술은 서구와는 다른 동양적 예술관에 기인한 것으로 김환기는 산과 달, 향아리 등 자연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한국 정서를 함축된 조형언어로 구현했다.

김환기와 함께 한국 추상미술을 개척한 유영국은 작품 초기 서구의 기하학적 추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분할된 면의 비구상적 형태로 산을 형상화 하며 동양적 사유가 담긴 독자적

인 스타일을 완성해낸다.

'서정적 추상-자연의 생명력(1980~90년대 작품)'에서는 자연과 교감하며 내면의 세계를 추상화로 표현한 고화흠, 오숙환, 이철주 작가 작품을 선보인다.

고화흠은 자연 일부에서 온 것을 은은한 색채로 표현, 작가가 그려온 그리움의 언덕, 이상향의 세계를 서정적 추상으로 나타냈다. 이철주는 굵고 검은 선과 원색면의 조화를 통해 우주 기운생동이 느껴지는 수목추상을 그렸다. 오숙환은 먹의 운용을 통해 구름, 바람 등 자연의 순간성에 주목한 수목 추상을 전개했다.

'관념적 추상-색채의 풍경(2000년대 이후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내적 치유 과정을 색채로 담은 강운, 이인, 진유영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인은 자신의 기억 속 노을지는 바다 위 풍경을 한지 위 색채의 번짐과 대비를 통해 아름답고 강렬한 추상화로, 강운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의 슬픔을 화

폭에 적고 색으로 지우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깊고 푸른 색의 추상화로 그려냈다. 진유영은 몇점의 붓자국으로 채워진 색면과 기호학적 형태를 통해 작가의 자유롭고 풍성한 내적세계를 담았다.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수집\_호남의 기억과 시간'은 그간 시립미술관이 이뤄온 광주미술사, 근현대미술사 관련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다. 1992년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총 5385점(지나해 수집 기준)의 근현대관련 국내외 미술작품을 수집했다. 전시는 2022년 수집한 신소장품을 포함, 5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호남의 역사와 풍경 △호남미술의 역량 △호남미술과 미술관 등 세 파트로 나뉜다.

'호남의 역사와 풍경'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지역 대표 미술관으로 호남의 역사적 사건이나 장소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작품, 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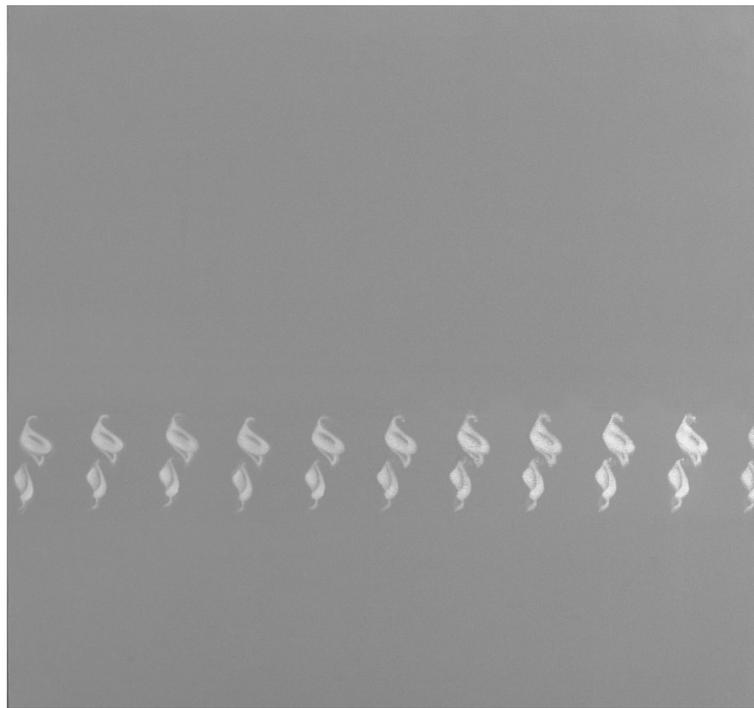
산 등 미려한 산천, 호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했다.

'호남미술의 역량'은 지역출신 출향작가 작품과 현대미술에서 언급되는 추상회화 부문으로 구성했다.

호남미술이 지역으로 국한된 지역적 성격이 아니라 호남과 관련해 그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작업세계를 구축한 작가의 역량을 소개한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구상회화 중심에서 비구상회화가 시작되는 그 시류에 활동하고 이어온 호남화단 추상미술의 역량을 소개한다.

'호남미술과 미술관'은 소치 허련부터 이어온 남종화 계열 문인화부터 새롭게 표현되는 동시대 한국화까지 소개한다. 호남미술을 대표하는 한국화 부분을 다뤄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지역미술사 정체성 및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김유민 작 '스며든 자국'.

## 김유민 청년작가, 내달 3일까지 '스며든 자국' 전시

금호갤러리 2·3관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된 김유민 작가의 개인전 'Seeped Marks(시프드 마크스·스며든 자국)'가 내달 1월 3일까지 갤러리 2·3관에서 열린다. 실을 화면 위에 감아올리는 초기 작업부터 나이프와 스퀴지를 이용해 완성한 회화작 등을 선보인다. 작가는 물감이 굳지 않은 상태에서 나

이프나 스퀴지를 이용해 밀고 문지르기를 거듭해 우연적으로 생겨난 이미지를 탐구했다. 이러한 제작 과정에서 회화가 지닌 물질성을 발견한다. 화폭에는 심리적 불안과 긴장이 자제된 색과 형태로 형상화된, 불완전한 자신이 담긴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 입장마감은 오후 6시까지. 전시 마지막 날인 1월 3일은 오후 1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 국립나주박물관 지역 문화기관 소장품 보존처리 지원

고흥분청·한센병 박물관 등

국립나주박물관은 올해 박물관 협력망 강화사업 일환으로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속과 지류 소장품 61건 63점에 대해 보존처리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존처리를 위한 시설이 없는 지역 내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지원은 △금속·지류품 보존처리 △지류 보관 폴더 및 상자 제작 등이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지난 11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원장 박혜경)과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협력을 강화했다.

김상태 국립나주박물관 관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국·공립박물관과 협력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옛 전남도청 복원' 국립 문화예술공간 조성

문체부, 10대 핵심과제 발표

청년·지역문화 인프라 확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문체부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사업에 포함됐다. 오는 2030년까지 5개 권역에 대해 1조5000억원을 투입,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전라·제주권(옛 전남도청 복원)을 비롯해 서울(노후화된 공간 재구성), 경기·강원권(서울 인접권을 활용한 개방형 수장시설 및 공연장 조성), 경상권(옛 경북도청 문화공간화), 충청권(옛 충남도청 문화공간화) 등 5개 권역별 국립 문화예술 공간을 새롭게 조성,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을 개선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지역에서도 발레단, 오페라단, 오케스트라 등 예술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180억원·지방비 50%)한다.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한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내외를 선정, 1개당 국비 기준 최대 연 20억원 규모로 지원해 지역 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최고의 예술, 모두의 문화를 위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만 19세 청년들이 내년에 연간 최대 15만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받게 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패스다.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내년 예산 170억원을 투입, 1인당 15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동 공간 제공을 대폭 강화(2023년 27억원→2024년 100억 원·270% 증액)하고 국립예술단체 청년 교

육단원을 2024년 3배 이상 확대(2023년 95명→2024년 295명)하는 등 간접 지원에 나선다. 재능있는 청년예술인의 무대 기회와 경험을 확장해 세계적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세계적 이벤트 현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 국립현대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공연, 한국미술대표작품 전시 등 14개의 문화예술 행사를 현지 개최(178억원)한다. 도선인 기자

## ACC재단, 내달12일까지 가족공연 공간지원 작품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종로문화재단(대표이사 유광종)과 1월12일까지 어린이극장 및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위한 '2024년 가족공연 공간지원 작품'을 공모한다.

국내 대표 어린이전용극장을 운영 중인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관객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작품 선발을 통해 어린이극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협력사업이다.

공모는 △ACC 어린이극장 '렛츠플레이' × 2024 종로가족공연축제(통합공모) △2024 종로아이들극장 공간지원 공모

등 2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2개 분야 모두 장르 제한 없이 무대와 객석 규모에 적합하면서 어린이와 가족을 주요 관객으로 하는 공연이면 된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통합공모'는 5년 이내 제작된 공연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와 함께 공연장 및 부대장비, 공연 진행시 필요한 극장 운영, 홍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ACC 어린이극장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르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을 참조하면 된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사한 공모사업 통합을 통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선정단체는 서울과 광주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며 "어린이 공연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다. 도선인 기자